신탁

업무분야

2011년 신탁법 전면개정으로 신탁이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.

바른은 2012년부터 '상속신탁연구회'를 발족하여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써 신탁을 꾸준히 연구해왔습니다. 그 결실로 '상속신탁연구 I '과 '상속신탁연구 II '를 발간하였고, KCI 등재지에 유력한 논문들이 게재되었습니다. 이 같은 연구와 실무경험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 Chambers and Partners로부터 개인자산관리분야 최고등급(Band 1)을 받았습니다. 바른 신탁팀은 상속, 금융, 블록체인(NFT),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벽하게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신탁전문가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.

주요구성원

조웅규

여지윤

주요업무분야

- 부동산신탁업무
- 재건축/재개발관련 신탁업무
- 도산관련 신탁업무
- 금전/채권/주식신탁업무
- 상속신탁(유언대용신탁/수익자연속신탁)업무
- 후견신탁업무
- 공익신탁업무
- 신탁 관련 조세 업무

관련자료

최영노#조웅규 변호사, "블록체인을 이용한 수익권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쟁점" (상사법연구, 2021)

조웅규 변호사, "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– 주식 수익권 분리를 통한 유류분 문제 해결–" (신탁연구, 2022)

조웅규·김지은·김현경 변호사, '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- Private Wealth 2026: South Korea' 기고